사랑하는 금오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곽호상입니다.

지난 번 메일에서는 제가 전략목표로 설정한 **"주목받는 대학, 앞서가는 대학, 백년가는 대학"** 중 "주목받는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백년가는 대학"에 들어있는 제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년가는 대학! 우리 대학의 위상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국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대학회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은 세입 380억원, 세출 349억원, 외형으론 31억원, 산학협력단 전입금 17억원을 빼면, 14억원 흑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등록금 수입은 187억원인데 중도탈락 증가로 2018년 대비 51억원이 줄었고 인건비 등 지출은 늘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아 다음해로 넘기는 순수 이월금은 2018년 49억원에서 2020년 17억원 규모로 줄었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 안정의 핵심은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가능한 국비 확보입니다!

저는 백년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제 1 전략과제로 **[1] 재정구조 안정화와 투자재원 확충**을 설정하였습니다. 3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① 특수목적 고유 재정사업 확보 (연 50 억원 규모)
재정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우리대학 고유의 재정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대학이 경쟁하는 일반 국책사업은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대학 운영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특화된 인력양성 수요가 있지만 기존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금이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보할 적기입니다. 한 발 앞선 창의적인 기획과 전격적 추진,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소속한 교육부와 예전 우리대학 지원부처였던 국방부에 제안할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총장에 선출되면 전담팀을 직접 꾸리고 진두지휘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② 산학협력단 예산 500억원/년 시대 개막 (임기 중 2000억원)
우리 대학이 1년 동안 외부에서 수주한 사업과 과제 예산을 말하는 산학협력단 예

산은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수입 278억 원입니다. 예산 500억원은 222억원을 증액하는 도전적 과제로 보이지만 이미 선정된 연구특구 사업 등이 있고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준비 중인 사업도 있으며 제가 산학협력 토론에서 말씀드린 지역산업 선도형 국책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대학 총장 출신 국회의원의 측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어려운 목표는 아닙니다.

산단 수입을 구성하는 두 중심축은 사업과 과제입니다. 간접비율이 낮은 대형 국책사업은 간접비 수입보다는 투자되는 직접비로 우리대학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인프라 확보에 기여합니다. 재정 확충의 요체는 간접비율이 29%로 높은 국가과제 수주 확대입니다. 국가과제는, 직접비를 고정시키고 대학별 고시비율로 간접비를 별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높은 간접비율이 연구자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과제, 특히 규모가 큰 중견 및 대형 과제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비 수입을 확충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③ 발전기금 100억원 모금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전재산 수십억원을 대학에 기증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다양한 소액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과 동문, 기업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고액 기증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백년금오를 위한 두 번째 전략과제은 **[2] 대학위상 강화**입니다.
첫째 세부과제는 장관급 총장 국립대학으로 대학 위상을 격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대학 행정조직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작은 수에 묶여있고 공무원 T/O 또한 작습니다. 재정 문제 또한 이와 연관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전방위적으로 뛰어 이 불공정한 체계 바로잡겠습니다.

앞서가는 대학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 대학 고유의 강점,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 정책토론회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별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메일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5일
곽호상 올림